



OPP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CPP Film

1. OPP 필름

2007년 OPP 필름 시장은 중국 수입필름의 증치세 환급을 인하여 정책과 자국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필름 유입이 감소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 2006년 대비 OPP 필름의 수급이 다소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필름의 감소 외에 울춘화학의 설비 이전으로 국내 공급물량이 일시 부족현상으로 나타나 공급 불안 상태를 지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OPP 필름 업체들은 “전체적인 수요시장은 경기하락과 물가 불안이 소비감소로 이어져 포장산업은 여전히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유가 인상에 따른 PP 레진 가격이 폭등하였고 PP 수급 Tight로 인한 원료 물량 확보가 어려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이는 업체들의 경영 압박은 물론 부자재, 전력비 등 각종 제조 경비 증가로 공급 부족 현상에도 여전히 적자 상황은 지속된다는 얘기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OPP 필름 생산업체의 수급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협회에 가입돼 있는 OPP 필름 생산업체는 대림산업(주), (주)삼영화학공업, 울춘화학(주), 자강산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6개사이다.

대림산업(주)은 B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포장용 20%, 합지용 30%, 테이프용 20% 기타 3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2개 라인 설비에서 2,5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수출 7,000톤을 수출하고 내수 14,000톤을 공급했던 대림산업은 지난해 2개의 라인에서 25,000 생산능력으로 수출 6,000톤 내수 18,000톤을 공급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필름이 감소돼 국내 필름 메이커의 수출 증가와 내수 공급 능력 감소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balance를 회복했다”며 “그러나 원재료 및 부자재 가격의 급상승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도 달리면서 원료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1) O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2	25,000	6,000	18,000
삼영화학공업(주)	4	30,000	6,000	13,200
울촌화학(주)	2	17,000	1,200	15,800
자강산업(주)	1	9,600	720	8,880
(주)필맥스	3	25,000	6,200	18,0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12,000	13,000

삼영화학공업(주)은 섬유, 인쇄, 테이프, 라미용 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2006년 4개 라인에서 32,000톤의 생산능력 중 수출 5,000톤, 내수 15,000톤을 공급한 삼영은 지난 해 4개 라인 설비에서 30,000톤의 생산능력으로 6,000톤, 내수 13,200톤을 공급했다.

삼영 관계자는 “지난 해 OPP 필름 시장은 수입 필름 감소와 라미용 박막필름 생산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나 PP 레진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에도 수익성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6년 3개의 라인으로 24,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수출 2,400톤, 내수 20,000톤을 공급했던 울촌화학(주)은 지난 해 10월 생산라인 1기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OPP 필름 시장의 국내 공급물량이 일시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해 울촌은 2개 라인으로 17,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1,200톤, 내수 15,800톤을 공급했다.

2006년 1개의 라인으로 8,400톤 생산능력 가운데 수출 600톤, 내수 7,800톤을 공급한 자강

산업(주)은 지난 해 1개 라인으로 9,600톤의 캡파로 수출 720톤, 내수 8,880톤을 공급했다. 자강 관계자는 “OPP 필름업체는 공급 불안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시달리는 것은 물론 원가 상승에 대한 제품가의 반영이 원활치 않아 수년째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BOPP, CPP, SPP, 증착, 코팅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필맥스는 2006년 3개 라인으로 20,1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6,000톤을 수출했고 14,000톤을 내수 공급했다.

지난 해에는 3개 라인에서 25,000톤 캡파로 수출 6,200톤, 내수 18,000톤을 공급했다.

필맥스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폭등 및 물량 부족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부족하나 수익악화는 지속 중”이라며 “수급 호전으로 일부 제품가를 인상하고는 있으나 인상 시점의 차이가 있어 하부고객의 형평성 원료가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자재, 전력비 등 각종 제조경비 증가로 적자 상태는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OPP 및 PET 통기성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990년 OPP 필름을 생산하기 시작,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합지용 25% 인쇄용 10% 합성지 10% 테이프용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3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30,000톤으로 수출 12,800톤, 내수 12,000톤을 공급했던 화승은 지난 해 3개 설비로 30,000톤의 캡파로 12,000톤을 수출했고 13,000톤을 내수 공급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된 OPP 생산업



(표 2) C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2	6,000	-	4,320
삼영화학공업(주)	1	4,200	500	2,500
(주)성일화학	3	6,000	180	4,260
(주)유상	4	900		900
울촌화학(주)	1	9,000	600	8,400
(주)필맥스	2	9,000	2,300	6,000

체들의 지난 해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공급량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OPP 필름 시장이 국내 수입필름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수입필름 유입이 감소된 이유인 중국 정부의 환급률 축소 정책은 원자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완제품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중국에서 모든 가공을 마치고 국내에 들여와 포장하는 형식이어서 국내 OPP 수요 확대를 낙관하기엔 어려운 상태이다.

2. CPP 필름

지난 해 CPP 필름 시장은 여전히 생산설비 과잉에 따른 치열한 가격경쟁과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인성공업과 한서필름이 지난 해 설비를 증설하는 등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또한 OPP 시장과 마찬가지로 원료 공급의 부족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고 원가 압박과 수요 감

소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CPP 필름 생산업체의 수급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CPP 필름 생산업체는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주)성일화학, (주)유상, 울촌화학(주), (주)필맥스가 있다.

삼민화학공업(주)은 2006년과 같이 지난 해 2개의 라인설비에 6,000톤의 생산능력으로 4,320톤의 내수를 공급했다.

삼민 관계자는 “포장제품의 다양화 때문에 기능성 필름이 점차 요구되고 있으나 사용량이 많지 않아 실제 시장 수요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원료나 필름 등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기대에 여의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삼민은 공급과잉 및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CPP 공급량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 1개 라인에서 3,500톤 생산능력으로 수출 120톤, 내수 3,000톤을 공급한 삼영화학공업(주)은 지난 해 1개 라인에서 4,200톤 캡파로 500톤을 수출하고 2,500톤을 내수 공급했다.

열접착성, 야채포장, 식빵 포장용 등의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성일화학은 2006년 3개 라인에서 6,000톤 생산 능력 가운데 180톤을 수출했고, 4,100톤을 내수 공급했다.

지난 해에는 3개 라인에서 6,000톤의 캡파로 수출 180톤, 내수 4,260톤을 공급했다.

현재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CPP 필름 시장에 대해 삼영은 “원료 가격의 상승 및 수급 문제는 국제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해결될 문제”

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생산설비 과잉은 기능성 필름의 개발로 수요처를 확대해야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반, 증착, 기능성, 산업보호용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유상은 2006년 1개의 신규 라인을 가동한 4개 라인으로 12,000톤의 생산 능력으로 전량 내수 공급했다.

지난 해 유상은 4개 라인으로 900톤 캡과로 900톤을 전량 내수 공급했다.

유상 관계자는 “국제 Oil 급등에 따라 PP 레진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급 및 고객사와의 가격조정 갈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8, 9월 이후 원자재 가격안정을 이루면 4/4분기부터는 호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6년 1개 라인 설비로 8,0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300톤을 수출하고 7,700톤을 국내에 공급한 울촌화학(주)은 지난 해 1개 라인으로 9,000톤의 캡과로 600톤을 수출하고, 8,400톤을 내수 공급했다.

2006년 2개 라인 설비로 7,5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2,500톤, 내수 5,000톤을 공급한 (주)필맥스는 지난 해 2개 라인으로 9,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2,300톤을 수출하고 6,000톤을 내수 공급했다.

필맥스 관계자는 “CPP 필름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료 공급량이 줄고 그레이드 수가 축소되고 있어 외형, 수입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신포장기술 개발 산업 주관사로 선정됐던 필맥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고가 레토르트 파우치 등과 관련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수출할 계획이다.

CPP 필름 시장은 후발주자들의 지속적인 증설로 시장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수요창출에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는 OPP 필름 시장과는 달리 CPP 시장은 기능성 및 산업재 용도로 시장을 개척할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와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필름 업체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원자재인 PP 가격이 지난 해 말 톤당 125만원에서 올 4월 180만원으로 44% 올랐다. 하루빨리 원자재가 안정화되고 레진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가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OPP, CPP 필름 업체들의 한숨이 그나마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

독 자 쥬 렘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